

광주의 골목길

⑤ 충효동 충효샘길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충효마을 정자.

구불구불 골목마다 김덕령 장군 충효 서려

장군의 태생지...정조가 이름 붙인 역사의 길

왕버들·돌담·우물 짧은 길에 긴 이야기 담겨

충효샘길은 충효동에 있는 길이다. 호수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시작되어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장으로 이어진다. 이 골목을 걷는 일은 충효동(성안마을)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 즐거울 것 같다.

‘충효’는 김덕령장군의 호이며 충효마을은 김덕령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또한 그의 아내 홍양이씨가 몸을 숨기고 있다 왜적이 가까워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곳이다. 후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조가 하사한 이름이 지금의 충효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충효란 호를 남긴 장수 김덕령은 누구인가. 그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장이었으나 나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장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조종으로 무장한 왜군은 거침없이 한양으로 진격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전주로 달아났다. 왜군에 대한 방비가 되어있지 않던 관군은 추풍낙엽이었다.

백성을 버리고 도주한 임금이었으니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몽학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길에 올랐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반란은 평정이 되었다.

따라서 김덕령은 충도에 회군하였으나

이를 두고 이몽학과 내통하였다는 무고가 들어갔다. 죄가 없으니 죄를 말할 수 없었던 그는 20일간의 국문 끝에 옥사하였다. 27살의 나이로 전국 의병을 지휘통솔하게 된 김덕령은 그렇게 적장의 칼날이 아닌 조선의 명에 의해 형장의 이슬이 됐다.

비운의 길을 걸었던 김덕령. 이제 다시 그가 유년을 보냈던 길을 걷는다. 충효샘길의 초입에 이르러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3그루의 충효동왕버들(수령 430년)이 웅장한 자태를 보인다.

멀리서 보면 그 거대한 크기에 여러 그루의 나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은 세 그루가 전부다. 김덕령장군이 태어난 해(1567년)에 심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다섯 그루이던 것이 두 그루는 죽고 세 그루가 남았다. 겨울이면 생명이 다한 고목(枯木)처럼 보이는 나무지만 봄이 되면 가지마다 연둛빛 싹이 발아한다. 거무죽죽한 나무껍질과 대조되는 그 빛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왕버들나무가 있는 길 건너편에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있다. 드넓은 녹지다. 주말이면 꽤 많은 인파가 걷고는 한다. 호수생태원의 길 건너가 충효마을이자 충효샘길의 시작이다. 참고로 이 충효샘길은 역사길 3구간의 일부에도 포함이 된다. 왕버

들과 김덕령장군 일가를 기린 비, 정려비각을 지나 마을 안으로 향하는 골목을 걷다보면 좌측으로 소규모 대숲 아래로 빈터가 보인다. 김덕령 장군의 생가터이다. 안내표지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어지는 골목의 담장은 돌담이 많다. 낮은 돌담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다. 담 너머를 감추지 않는 순박함이 있다. 사유와 공유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으려는 공동체정신이 스며있다. 담장을 타고 호박넝쿨이 오른다. 옥수수가 담장을 대신하는 곳도 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마을의 중심에 이르게 된다. 마을을 바위에 비유하자면 바윗살들이 모이는 중심, 연 앞으로 뒤덮인 작은 못 중심에 역시 작은 정자가 떠 있다. 정자를 둘러싼 배롱나무가 이곳을 아담한 정원으로 바꿔놓는다.

연못 옆에는 공동우물이자 빨래터였던 공간을 복원해놓았다. 과거 공동우물은 단순히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SNS의 장이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야기와 비밀이 동시에 생겨난다.

비밀의 누설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의병장에서 역적으로 다시 총장(充壯)으로. 충효샘길은 짧은 길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의 길은 짧지 않다. 짧은 길을 걸으며 긴 사유에 젖어보고 싶다면 충효샘길을 걸어보라 권하고 싶다.

〈김용태 시민기자·소설가〉

미래유망 환경분야 신산업 발굴 나선다

시, 교수·연구기관·기업 참여 TF팀 회의 개최

광주시가 미래유망 환경분야의 신산업 발굴에 나섰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3~2017)'에서 미래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최근 교수·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광주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가능한 기업체와 연구기관 발굴, 시가

추진 가능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용 실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융합 신기술개발 등 환경기술 R&D지원 ▲금융 및 사업화 지원 ▲환경 인증지원 ▲수출 및 해외사업지원 등 환경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기업체 대표로 참석한 보람이엔티(주) 이재형 대표이사는 "광주지역이 환경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요구를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후, 환경보건, 환경복원·복구, 환경지식서비스 등 4대 분야를 신산업으로 구분해 분야별 집중지원을 통한 자생기반 조성 및 성장경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신산업 현황, 기술력 등 실태평가를 통한 신산업육성 대책 마련과 관련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를 구성·운영해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 공원에서 유기동물과 산책 하세요”

광주 북구 보건환경연구원 내

벤치·산책로 등 갖춘 쉼터 마련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북구 본촌동) 정원에 작은 공원을 조성, 유기동물을 돌보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개방했다. 작은 공원은 지난달 공사에 들어가 420㎡ 규모에 울타리와 벤치, 산책로를 갖췄다.

이곳은 청사 옆에 위치한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보호·관리중인 동물과 연간 800여명에 달하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산책 등 야외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은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유기동물 건강 관리를 위한 야외활동 공간이 부



족해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작지만 청사 내 유휴 공간인 정원을 공원으로 꾸미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

한 쉼터를 마련했다”면서 “광주시동물보호소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유아 무균성수막염 주의보

광주보건환경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고열과 구토, 발진 등 증세를 보이는 무균성수막염에 감염된 영·유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연중 광주지역 병·의원의 소아과를 찾거나 입원하는 영·유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무균성수막염은 5월 15.8%(19건 중 3건), 6월 49.0%(51건 중 25건), 7월 2주 현재 54.3%(46건 중 25건)로 증가추세여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7~8월에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무균성수막염, 수족구병, 심근염 등 다양한 질병이 유발된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고열, 두통, 구토,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다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북수원지 해갈...물 걱정 없다

최근 비로 저수율 59.7%...수돗물 공급 '거뜰'

지난 18일부터 3일간 광주지역에 내린 비(234mm)로 동북수원지가 해갈돼 올 한해 식수 걱정을 덜게 됐다.

광주시민 60%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북수원지는 올해 마른 장마가 이어지며 지난 13일 저수율이 최저 33.2%까지 떨어졌다. 가뭄이 지속돼 저수율이 23% 이하로 낮아질 경우 '수돗물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따라 수돗물 감량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비로 저수율이 59.7%로 상승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32.7%p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저수량으로 18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수돗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저수량을 확보했다.

또한, 저수량이 늘어나면서 수원지 수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장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투자 가치 좋습니다
H. 010 - 3605 - 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